
주요국 예산안 - 캐나다

[Budget 2021]

2021. 6.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경제재정분석팀장

공동연구원

배소민 위촉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3
3. 예산안 내용	4
가. 세입	6
나. 세출	11
4. 주요 재정정책	9
가. 코로나19 종식	9
나. 일자리 창출 및 성장	12
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	20
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부	25
마. 재정건전화	27
바. 2021 캐나다 예산안에 대한 평가	28

캐나다 개황

□ FY2021-22 : 2021.4~2022.3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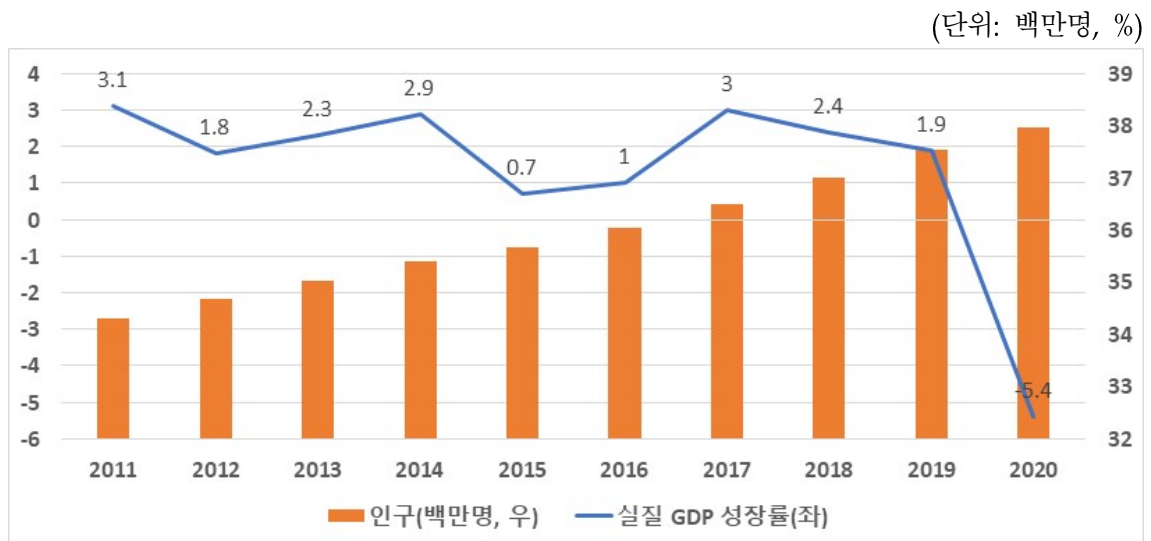
○ Budget 2021 (2021.4.19)

□ 환율 : 1캐나다달러 = 약 880.07원(2020년도 1월~12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20년 경상 GDP 1조 6,434억 달러

□ 인구 : 2020년 약 3,797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21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5.8%, 9.3%,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8.2%, 1.7%로 전망
- (재정전망) FY2021-22 재정적자는 1,547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6.4%)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5-26에는 307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1%)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21년 예산안은 「일자리, 성장과 복원력을 위한 회복 계획(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를 주제로, 코로나19와의 싸움 종식 및 회복을 위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둠
- ‘코로나19 종식’,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들을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21-22 총세입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3,55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7%)로 전망되며,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FY2025-26까지 15.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출) 총세출은 FY2021-22 전년대비 8.2% 감소한 4,756억 캐나다달러, FY2022-23 4,03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코로나19 종식’,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주제로 제시되는 주요 재정정책은 ①코로나19 퇴치, ②불황 극복, ③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라는 세 가지 근본 과제를 다룸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1.0%p 상향 조정된 4.8%로 전망
 - 2020~2025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FES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된 1.7%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21년 명목 GDP 성장률은 2020년 FES 전망 대비 2.8%p 상향 조정된 9.3%로 전망
- (실업률) 2021년 실업률은 2020년 FES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된 8.0%로 전망
 - 2020~2025년 평균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3%p 하락한 7.0%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FES 전망 대비 0.5%p 상향 조정된 2.2%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2.1%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1>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25
실질GDP 성장률	2020 FES	-5.5	4.8	3.2	2.3	2.1	1.9	1.5
	Budget 2021	-5.4	5.8	4.0	2.1	1.9	1.8	1.7
명목GDP 성장률	2020 FES	5.4	7.0	5.3	4.4	4.3	4.0	3.3
	Budget 2021	-4.6	9.3	6.0	4.0	4.0	3.8	3.8
실업률	2020 FES	9.8	8.2	7.1	6.4	6.1	6.1	7.3
	Budget 2021	9.6	8.0	6.5	6.2	6.0	5.9	7.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20 FES	0.7	1.7	1.9	2.0	2.1	2.1	1.7
	Budget 2021	0.7	2.2	2.0	2.1	2.1	2.1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1.1 일부 발췌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21-22 재정적자는 1,547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6.4%)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5-26에는 307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1%)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21-22 총세입은 전년대비 389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3,55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5-26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5.3% 수준으로 유지
- (총세출) FY2021-22 총세출은 전년대비 1,373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976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21-22 프로그램 지출은 4,756억 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22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 비율은 FY2021-22에는 51.2%(12,338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49.2%(14,110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표 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총수입	334.1	296.2	355.1	377.9	396.4	417.9	437.7
총지출	362.9	634.9	497.6	428.7	439.7	449.8	466.0
프로그램지출	338.5	614.5	475.6	403.0	409.2	414.4	426.7
이자지출	24.4	20.4	22.1	25.7	30.5	35.4	39.3
재정수지	-39.4	-354.2	-154.7	-59.7	-51.0	-35.8	-30.7
연방채무 ¹⁾	721.4	1,079.0	1,233.8	1,293.5	1,344.5	1,380.3	1,411.0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5	13.4	14.7	14.8	14.9	15.1	15.3
프로그램지출	14.6	27.9	19.7	15.8	15.4	15.0	14.9
이자지출	1.1	0.9	0.9	1.0	1.1	1.3	1.4
재정수지	-1.7	-16.1	-6.4	-2.3	-1.9	-1.3	-1.1
연방채무	31.2	49.0	51.2	50.7	50.6	50.0	49.2

주: 1. FY2020-21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1.4 일부 발췌

1)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2. 예산기조

□ 2021년 예산안은 「일자리, 성장과 복원력을 위한 회복 계획(A Recovery Plan for Jobs, Growth, and Resilience)」를 주제로,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종료하고 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 이번 예산안에서는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들이 제시되며, 4개 주제는 캐나다 정부가 마주한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다룸

* ① 코로나19 종식(Finishing the Fight Against COVID-19), ② 일자리 창출 및 성장(Creating Jobs and Growth), ③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A Resilient and Inclusive Recovery), ④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부(Fair and Responsible Government)

- (과제 1. 코로나19 퇴치) 백신을 구입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원하며, 감염예방 수칙을 강화하고 경제가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
- (과제 2. 불황 극복) 고용 및 기업의 빠른 회복, 여성·청년·저임금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층에 대한 확실한 지원 제공
- (과제 3.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 전환,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공평하고 튼튼한 미래 실현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21-22 총세입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3,55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7%)로 전망되며, FY2025-26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5.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조세수입) FY2021-22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409억 캐나다달러(0.3%) 증가한 2,97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4%)로 전망
 - (개인소득세) FY2021-22 세입의 가장 큰 구성요소인 개인소득세는 전년대비 122억 캐나다달러(0.1%) 증가한 2,97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정부의 소득 지원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위기 여파로 소득 증가율이 제한적
 - (법인세) FY2021-22 법인세 수입은 전년대비 41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53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6% 증가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낮은 수익성 및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해왔으나 향후 경제가 회복되며 지속적인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비거주자 소득세) FY2021-22 비거주자 소득세는 전년대비 14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9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21-22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대비 112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410억 캐나다 달러로 전망이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세) FY2021-22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경기회복과 함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45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6.4% 증가 전망
 - (기타 소비세) 판데믹 이후 감소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FY2021-22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117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디지털서비스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FY2021-22

2억 캐나다달러, 이후 FY2025-26 9억 캐나다달러로 예상

- (고용보험) FY2021-22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전년대비 15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37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세입) FY2021-22 기타 세입은 전년대비 247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73억 캐나다달러, FY2025-26은 38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3> 세입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총 소득세(A)	227.1	222.9	240.5	251.0	263.2	278.1	291.9
개인소득세	167.6	168.2	180.4	187.5	195.5	204.0	213.5
법인세	50.1	46.2	50.3	52.8	56.7	62.9	66.8
비거주자소득세	9.5	8.5	9.9	10.6	11.0	11.3	11.7
총 소비세(B)	53.9	44.0	57.1	60.9	63.0	64.9	66.9
재화 및 용역세	37.4	29.8	41.0	43.6	45.2	46.7	48.2
관세	4.9	3.7	4.5	4.9	5.1	5.4	5.8
기타소비세	11.6	10.5	11.7	12.4	12.7	12.8	12.9
디지털서비스세		0.0	0.2	0.7	0.8	0.8	0.9
총 조세수입(C=A+B)	281.0	266.9	297.8	312.5	326.9	343.8	359.7
고용보험(D)	22.2	22.2	23.7	25.4	27.3	29.2	31.2
기타 세입(E)	28.3	2.6	27.3	32.0	34.2	36.9	38.9
총 세입(F=C+D+E)	334.1	296.2	355.1	377.9	396.4	417.9	437.7

GDP 대비 비중(%)

총 조세수입	12.2	12.1	12.4	12.2	12.3	12.4	12.5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1	1.1
기타 세입	1.2	0.1	1.1	1.3	1.3	1.3	1.4
총 세입	14.5	13.4	14.7	14.8	14.9	15.1	15.3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1.5 일부 발췌

나. 세출

□ 총세출은 FY2021-22 전년대비 8.2% 감소한 4,756억 캐나다달러, FY2022-23 4,03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21-22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1,44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344억 캐나다달러 (FY2025-26)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21-22 625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여 5년간 연평균 44억 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21-22 고용보험 지출은 실업률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8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12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노동시장 회복과 함께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

- (긴급재난 지원금 및 경제복구 지원금) 경기가 회복되고 임시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FY2021-22 지출은 전년대비 434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13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지원) FY2021-22 아동복지급여(CCB: Canada Child Benefits)는 전년대비 8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27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임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FY2022-23 263억 캐나다달러로 감소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²⁾)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21-22 866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에는 843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FY2021-22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43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447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2)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법에서 규정, FY2021-22 15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5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홈케어및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21-22 1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2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³⁾) FY2021-22 직접프로그램지출은 2,443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며, 2021년 대부분의 코로나19 지원 혜택이 종료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FY 2025-26에는 1,962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기타 이전지출경비) 경기회복 및 코로나19 지원 종료로,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21-22 859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761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코로나19 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관련 비용 감소와 함께 FY2021-22 1,22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1,101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3)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표 4>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107.1	203.5	144.8	122.3	123.7	128.7	134.4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6.2	58.8	62.5	68.0	72.5	76.7	81.0
고용보험(EI benefits) ¹⁾	21.8	59.8	41.2	28.1	24.5	24.9	25.6
긴급재난지원금(CERB) 및 경제복구 지원금(CRB)	4.7	57.3	13.9	0.0	0.0	0.0	0.0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4.3	27.6	27.2	26.3	26.6	27.2	27.9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79.2	106.7	86.6	84.3	89.1	92.7	96.1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40.9	45.9	43.1	44.7	47.5	49.8	51.7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4.6	15.0	15.5	15.9	16.4	16.9	17.4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9.8	20.6	20.9	21.7	23.1	24.1	25.1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9	4.2	4.4	4.6	4.8	4.9	5.1
지역사회구축금(Community Building Fund)	2.2	4.3	2.3	2.3	2.4	2.4	2.5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1.1	1.3	1.5	1.2	1.2	1.2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²⁾	-3.3	15.5	-1.2	-6.0	-6.3	-6.6	-6.9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52.2	304.3	244.3	196.4	196.5	193.0	196.2
공해비 가격정책에 따른 반환(Proceeds from the Pollution pricing framework returned)	2.6	4.8	6.9	8.1	8.3	7.9	7.9
긴급임금보조금(Emergency Wage subsidy)	0.0	84.6	26.0	0.0	0.0	0.0	0.0
유아교육시스템지원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0.0	0.0	3.0	4.5	5.5	6.5	7.7
기타 이전지출(Other Transfer payments)	54.4	103.3	85.9	76.1	74.0	70.1	70.5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³⁾	95.2	111.6	122.5	107.7	108.6	108.4	110.1
총 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338.5	614.5	475.6	403.0	409.2	414.4	426.7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6	9.2	6.0	4.8	4.7	4.7	4.7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4	4.8	3.6	3.3	3.4	3.4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6	13.8	10.1	7.7	7.4	7.0	6.8
총 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4.6	27.9	19.7	15.8	15.4	15.0	14.9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3)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1.6 일부 발췌

4. 주요 재정정책

가. 코로나19 종식(Finishing the Fight Against COVID-19)

1) 건강 및 안전 보장

- (백신에 대한 접근성 강화) 주정부와 준주정부⁴⁾, 그리고 원주민 지역사회가 가능한 빠르게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백신 확보 및 접종계획) 2021년 3월말까지 총 950만 도스의 선량을 받아 당초 목표치인 600만 도스보다도 350만 도스가 더 많았음
 - 캐나다는 9월까지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완료 (fully vaccinated)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비용)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최대 10억 달러를 지원하여 자국민이 가능한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원에 관련 법안을 상정
 -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예방접종 클리닉 설립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게 됨
 - (국제사회 대응) 캐나다는 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accelerator, ACT-A)⁵⁾과 코백스 퍼실리티(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Facility, COVAX)⁶⁾의 창립회원국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2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지원
 - (최빈국 지원) 2021-22년까지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Canada)에 최대 3억 7,500만 캐나다달러를 제공하여 세계 최빈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
- (고령층 보호) 고령층과 고령층을 돕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금에 10억 달러를 지원

4)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territories)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10개 주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라브라도이다. 3개 준주는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임. 주에는 캐나다 헌법에 따른 자치권이 부여되나, 준주는 연방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는 차이가 있음

5) 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 개발, 공평 배분, 대량 조달 추진을 위해 WHO·EU집행위원회 등 주도로 2020년 4월 24일 출범

6)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로, 감염병혁신연합(CEPI), 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합의 하에 출범

- (장기요양 서비스) 고령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FY2022-23년부터 5년간 30억 캐나다달러를 보건부(health Canada)에 할당
- (데이터 수집 및 개선) FY2021-22년부터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6년간 4,13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지지적 진료(supportive care), 일차의료(primary care), 의약품과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및 수집 개선
- ('에이지 웰 앳 홈' 프로그램) '에이지 웰 앳 홈(age well at home)' 프로그램 출범을 위해 3년간 9,000만 캐나다달러를 고용 및 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지원
 - ※ '에이지 웰 앳 홈(age well at home)' 프로그램은 자원 봉사자들과 고령층을 연결하여 고령층의 식사 준비, 집안일, 일상 심부름, 교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보건 시스템 강화) 백신 및 개인 보호 장비 조달 등 전염병에 대응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431억 캐나다달러가 할당됨
 - (보건시스템 회복)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연된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준주의 보건시스템 지원)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보건투자기금(health investment fund)에 2년간 5,4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정신건강 지원) 2년간 4,5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관련 부처⁸⁾와 주·준주, 보건기구,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 아래 국가 정신건강서비스 표준(national mental health service standards)을 개발
 -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의료 종사자, 제일선 노동자(front-line worker), 고령층, 원주민에 대한 혁신적인 정신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위해 3년간 1억 캐나다달러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들을 위해 FY2021-22부터 2년에 걸쳐 5,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7) 유콘 준주에 2,700만 캐나다달러를, 노스웨스트 준주에 1,420만 달러를 지원

8) 보건부(Health Canada),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를 의미

- ('웰니스 투게더') '웰니스 투게더 캐나다(Wellness Together Canada)' 사이트⁹⁾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6,200만 캐나다달러를 보건부에 할당
- (바이오제조 및 생명과학) 바이오제조 및 생명과학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는 핵심 분야로, 2021년 예산안은 해당 부문 투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의생명과학 연구기금) 의생명과학 연구 지원을 위해 4년간 2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기금(biomedical research fund) 설립
 - (백신개발) 백신전염병기구(Vaccine and Infectious Disease Organization)의 백신 개발과 시설확장을 위해 3년간 5,92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줄기세포와 재생의학(regeneration medicine) 연구에 FY2022-23부터 3년간 4,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생명과학) FY2021-22부터 7년간 전략혁신기금에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유망 생명과학 기업과 바이오 제조 기업을 지원
 - (항생제) 5년간 2,860만 캐나다달러를 공중보건청, 보건부,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할당하여 항생제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
-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을 위해 교통부(Transport Canada)에 8,25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하도록 지원
 - (위생장비 지원) 670만 캐나다달러를 항공안정청(Canadian Air Transport Security Authority)에 할당하여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 (공항 운영 유지) 89개 공항의 운영 유지 및 코로나19 검사시설 강화를 위해 2억 7,110만 캐나다달러를 항공안정청에 할당

2) 근로자 및 기업의 회복

- (일자리 보호 및 기업 지원) 정부는 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코로나19로 타격

9)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웰니스 투게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도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을 입은 일자리 보호 및 기업 지원

- (임금 지원) 긴급 급여 보조금(emergency wage subsidy) 지원기간을 2021년 9월 25일까지 연장하고, 이후 2021년 7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보조금액을 축소
 - (임대 지원) 2021년 9월 25일까지 긴급 임대 보조금(emergency rent subsidy)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2021년 7월 4일부터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대출 지원) 지역 구제 및 회복 기금(RRRF: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과 원주민들을 위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indigenous business initiative)의 신청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근로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
- (복구 지원) 경제복구지원금(recovery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현재 38주에서 50주까지 12주를 더 연장하여 9월 25일까지 진행¹⁰⁾
 - (부양 지원) 회복부양보조금(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s) 지급기간 또한 4주 연장하여, 주당 500달러를 최대 42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병가 급여) 5년간 3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병가 급여(sickness benefits)를 현행 15주에서 26주로 연장¹¹⁾

나. 일자리 창출 및 성장(Creating Jobs and Growth)

1) 캐나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는 FY2021-22부터 5년간 최대 272억 달러를 투자하여, 준주정부와 주정부의 아동보육비용(child care costs) 중 절반을 부담할 예정¹²⁾
- (장애아동 지원) 장애아동들이 아동보육센터를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 연장되는 12주 중 처음 4주는 주당 500캐나다달러로 지급될 것이며, 나머지 8주는 경기가 재개됨에 따라 주당 300캐나다달러로 지급될 예정

11) 2022년 여름부터 시행되며, 이번 계획으로 약 169,000명의 캐나다인들이 충분한 회복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2) 2022년 말까지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보육기관 교육비 절반 감면

록 FY2021-22부터 2년간 2,920만 캐나다달러를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할당

- 400개 이상의 보육센터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센터 내 문(doors), 화장실, 놀이구조물 등을 개선하게 됨

○ (원주민아동 지원) 원주민 가정 아이들이 필요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FY2021-22부터 향후 5년간 25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보다 원주민아동들이 유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캐나다 전역에 최대 3,300개의 보육센터를 설립

□ (청소년 지원) 모든 청소년들의 의무교육 지원, 졸업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57억 캐나다달러 이상 투자 예정

○ (이자 면제) 정부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총 3억 9,270만 캐나다달러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법안을 도입

○ (고용 지원) 캐나다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지원 정책을 추진

○ (상환 지원) 연간 소득이 4만 캐나다달러 이하이자 1인 가구(living alone)인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년간 31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학비 보조금(Canada student grants)을 2배 증액하고 지급 기간 또한 2023년 7월까지 연장

○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¹³⁾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¹⁴⁾를 줄이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FY2021-22부터 2년간 1억 1,84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

○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중등 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업무 통합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2억 3,98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¹⁵⁾

13)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튜터링(tutoring), 상담(counselling), 그 외 학업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들(social supports)이 포함됨

14) 잦은 휴교, 장기화되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의미

15) 고용주들을 위한 임금 보조금을 75%까지 증가시켜 학생 1인당 7,500 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를

-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 3억 7,18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2022년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에 약 7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¹⁶⁾
- (근로자 및 기업 지원) 노동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과 이직,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
 - (기술 향상) 모든 캐나다인들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literacy)와 산술 능력(numeracy)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2억 9,8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유망산업 지원)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3년간 2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의 기술 향상 및 인력 재배치를 지원
 - (기술 교육) FY2021-22부터 3년간 8,000만 캐나다달러를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투자하여,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의 코딩·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을 위한 ‘캔코드(CanCode) 정책’을 확대
 - (근로자 보호) 캐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캐나다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26,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공
 - (근로자 복지혜택) 2021년 예산안은 캐나다 근로자 복지혜택을 확대하여 저임금 일자리(low-wage jobs) 종사자 100만명을 추가로 지원
 - (급료생활자 보호) 급료 생활자 보호 프로그램(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¹⁷⁾ 보상금에 적용되던 6.82%¹⁸⁾의 차감률을 폐지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제공

2) 기업의 성장 및 성공 지원

- (인재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기업의 인재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인재육성) FY2021-22부터 5년간 7억 8,800만 캐나다달러를 마이텍스(Mitacs)¹⁹⁾

통해 FY2021-22에는 약 5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됨

16)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은 향후 2년간 약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17) 재직 중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급료 생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18) 근로자는 7주 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최대 보상 금액에서 6.82%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음

에 할당하여 최소 8만 5,000개의 업무 통합 학습 공간(work-integrated learning placement)을 조성하고 기업의 인재육성과 성장을 지원

- (기술 도입 지원)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기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 향후 4년간 26억 캐나다달러를 할당
 - (자금 지원) 중소기업금융법 개정을 통해 연간 5억 6,000만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약 2,900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²⁰⁾
 - (항공우주 분야 지원) FY2021-22부터 3년간 2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 항공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항공기업 지원
- (기업가 지원) 2021년 예산안은 모든 기업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
- (여성 기업가 지원) 4년간 최대 1억 4,69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여성 기업가 전략(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프로그램을 강화
 - (혁신 기업가 지원)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및 지역개발기관에 4년간 최대 5,17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혁신 기업가 프로그램을 지원
 - (벤처자금 지원) 기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벤처자금 확대를 위해 FY2021-22부터 5년간 최대 4억 5,0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혁신기술 투자) 2021년 예산안은 혁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제시
- (혁신프로젝트 지원) 전략혁신기금에 향후 7년간 72억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생명과학, 자동차, 항공우주, 농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

19) 마이텍스(Mitacs)는 산·학·연의 협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가 연구 기관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와의 협업을 주선하고 기업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

20) 이번 개정으로 최대 대출금액이 35만 캐나다달러에서 50만 캐나다달러로 증액되며,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가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자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제공을 위한 신규 신용상품 또한 도입됨

- (AI 개발) 범 캐나다 AI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에 향후 10년간 최대 4억 4,38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AI 전략 개발을 지원

3) 건강한 경제 환경

- (탄소제로 경제) 캐나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탄소제로 경제(net-zero economy)를 위한 투자 실시
 - (탄소중립)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7년간 50억 캐나다달러를 '넷 제로 어셀러레이터 프로그램(Net Zero Accelerator)'에 투자
 - (소득세 감면) 탄소중립기술 발굴 기업에 대한 일반법인 및 중소기업 소득세(general corporate and small business income tax rates)를 2022년 1월 1일부터 50% 감면하고, 감면조치는 2029년 1월 1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청정에너지) 3년간 3,680만 캐나다달러를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에 할당하여, 배터리 광물 처리 및 정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실시
 - (오염가스 배출 규제 강화)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에 5년간 1억 46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규모 매립지의 메탄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
 - (녹색채권 관리체계) 정부는 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녹색채권(green bond)²¹⁾ 발행에 앞서 녹색채권 관리체계(framework)를 수립하여, 녹색채권을 기후 변화 해결 및 환경 보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주택 친환경보수작업) 주택소유자 1인당 4만 캐나다달러까지 무이자대출을 지원하여 주택 친환경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함²²⁾
- (청정산업) 보다 친환경적이고 회복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 캐나다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21) 녹색채권이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22) 동시에 공용주택 3만 5,000 세대에 총 25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건설 및 보수를 추진 예정

- (청정기술)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청정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솔루션을 제공
 - (탄소 관련 기술 개선) 7년간 3억 1,900만 캐나다달러를 천연자원부에 할당하여, 탄소 포집(capture)기술, 포집된 탄소 이용기술, 그리고 저장기술을 개선
 - (저탄소연료) FY2023-24부터 8년간 2억 2,970만 캐나다달러를 재정위원회 사무처 (treasury board secretariat)에 할당하여, 저탄소 연료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지원
 - (북부지역 지원)²³⁾ 북부지역에 청정전력을 제공하고 광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4년간 4,04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수력 발전 및 전력망 연동(grid interconnection) 지원
 - (원주민 지원)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etis) 지역 사회에 3년간 3,6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고안 및 경제 개발 기회 지원
- (기후 계획) 정부는 국내외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역량 강화, 청정기술 개발 프로젝트(Clean Growth Hub) 지원, 청정기술정책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9천 44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친환경 농업 방식) 농업 청정 기술 프로그램(Agricultural Clean Technology program)에 1억 6,55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캐나다 전역의 농부들이 저탄소 고효율의 농업 방식을 따르도록 지원
 - (탄소배출 감축 조치) 2년간 2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농업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agriculture climate solutions program)에 따라 농장 내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예: 질소 관리 개선)들을 즉각적으로 실시

23) 캐나다 북부는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석유·가스자원, 수자원, 수산자원 등이 풍부하여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북부지역의 자원개발은 극도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캐나다 정부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소를 선언하며 자원 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음.

- (기후렌즈 적용) 환경기후변화부에 5년간 3,62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전반에 기후렌즈²⁴⁾ 적용
-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 2021년 예산안은 기후 관련 재난에 대비 및 영향 완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제안함
 - (기금 투자 확대) 산불 완화, 습지 및 해안선 복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2년간 14억 캐나다달러를 재해완화 및 적응지원기금(Canada's Disaster Mitigation and Adaptation Fund)에 투자
 - (홍수 대비) FY2021-22부터 3년간 6,380만 캐나다달러를 천연자원부, 환경기후 변화부, 공공안전부에 할당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홍수지도(flood maps)²⁵⁾ 제작
- (자연 보호)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5년까지 국토와 해양의 25%를 보전
 - (친환경 사업) 5년간 23억 캐나다달러를 관련 부처에 할당하여, 자연 보호 및 관리 분야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멸종 위기 종에 대한 보호 사업 진행
 - (녹색기후기금) 3년간 2억 캐나다달러를 기반시설부(Infrastructure Canada)에 할당하여, 자연 기반시설 기금(natural infrastructure fund) 설립²⁶⁾
 - (해양 및 해안지역 보호) 5년간 9억 7,68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2025년까지 25%의 해양과 해안지역을 보호하고 연안 지역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연어 보호) 5년간 6억 4,710만 캐나다달러를 해양수산부에 할당하여, 태평양 연어 사무국(pacific salmon secretariat) 설치, 태평양 연어 개체 수 안정 및 보존 연구 이행
 - (깨끗한 수도 유지) 2년간 1,74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수도 및 관개 인프라(water and irrig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
 - (화학물질) 5년간 4억 7,670만 캐나다달러를 환경기후변화부, 보건부, 공공보건

24) 기후렌즈는 특정 정책, 계획,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에 취약한 정도와 기후변화의 위험이 고려된 정도 등을 검토

25) 주민들은 사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홍수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각종 공간정보를 GIS와 연계하고, 홍수빈도별 범람구역을 지도상에 도시한 것

26) 기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하이브리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지원

청에 할당하여,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유해한 물질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

4) 도시 및 지역사회 강화

- (주거 지원)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단기 제공하여 시급한 주거 수요를 해결하는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간 25억 캐나다달러 지원
 -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²⁷⁾ 캐나다 정부는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에 각각 2,5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30개, 100개의 신규 공공주택 유닛 건설을 지원
 - (노숙자 문제 해결) 향후 2년간 5억 6,700만 캐나다달러를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투자하여 노숙자 지원 사업 실시
- (축제 및 문화행사) 정부는 관광, 예술, 문화,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축제) 대규모 축제를 지원하고, 캐나다의 예술적 특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개발기관에 2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 (관광) 관광부문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5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관광구호기금을 설립
 - (문화유산)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에 3년간 3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문화유산, 예술, 스포츠 부문 회복을 위한 기금 설립
 - (음악) 캐나다 음악기금에 3년간 7,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음악가, 콘서트장, 프로듀서, 배급사들을 지원
 - (국립 예술 센터) 국립 예술 센터(National Arts Centre)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72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27)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모두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지역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공공주택 유닛 건설을 지원함.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 격차 해소이기에, 원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강력한 공동체 건설) 코로나19 이후, 더욱 회복력있고 포용력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일자리 창출) 정부는 7억 5,500만 캐나다달러를 사회금융기금에 할당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비영리단체 지원)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4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단체와 비영리단체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기금을 조성
 - (식량 지원) 지역사회 내 식량안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1억 4,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기반시설 투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간 5억 캐나다달러를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투자
 - (이주노동자 지원) 3년간 4,950만 캐나다달러를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도착안내 서비스, 비상·위험 상황 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회복(A Resilient and Inclusive Recovery)

1) 보다 평등한 사회 구축

- (인종차별 철폐 및 공동체 강화) 2021년 예산안은 보다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국가 건설에 초점
 - (흑인 지원)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2억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흑인 자선재단 기금을 신설하고 흑인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지원
 - (데이터 개발) 5년간 캐나다 통계청에 1억 7,2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인종차별과 관련한 데이터와 정보의 갭(gap)을 줄여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등한 경제 회복)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취약 계층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 (고령층 지원)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을 받고 있으면서 2022년 6월 기

준 75세 이상이 되는 수급자에게 500캐나다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

- (연금 인상) 75세 이상 노령보장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 지급액을 10%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약 330만 명의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 제공
 - (장애 프로그램 개혁)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1,19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장애 프로그램(federal disability programs)의 지원 자격 변경
 - (접근성개선기금 확대) 2년간 1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할당하여 접근성개선기금(enabling accessibility fund)²⁸⁾에 대한 지원금을 3배 증액
 - (성소수자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및 고용 지원 등 성소수자들의 당면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3년간 1,5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성소수자 프로젝트 기금(LGBTQ2 projects fund) 신설
 - (퇴역군인 지원) 5년간 1억 4,000만 캐나다달러를 캐나다 보훈부(veterans affairs)에 할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의 정신건강관리 비용을 지원
- (보건 지원) 캐나다 의료시스템이 사회 및 경제 안보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중보건시스템 구축
-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²⁹⁾)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을 위해 2년간 1억 1,6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피해 감소, 치료,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 구축
 - (취약계층 지원) 3년간 4,500만 캐나다달러를 보건부에 할당하여, 취약계층이 성건강 및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 지원) 여성 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연구소에 5년간 2,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국립여성건강연구소 설립

28)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

29) 오피오이드 위기란 주로 북미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 등)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에서 이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책을 실시

- (소아암 환자 지원) 보건연구소에 2년간 3,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소아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당뇨환자 지원) 5년간 2,5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당뇨병에 대한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

2) 원주민 지역사회 강화

□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연방정부는 원주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투자를 단행

- (코로나19 대응 지원) 원주민 공동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를 지원
- (건강관리 지원) 5년간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족의 공중보건 시스템 개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부문 영향 대응을 지원
- (정신 건강)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etis) 족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5억 9,76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학업 지원) 5년간 12억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족 아동에게 개인보호장비와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개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아동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지원

□ (기반시설 및 경제성장) 주택, 학교,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원주민 공동체 건설

- (기반시설 구축) 5년간 60억 캐나다달러를 원주민 공동체 내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호) 원주민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금(indigenous community business fund) 개혁에 1억 1,7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코로나19로부터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etis) 족의 사업 보호

- (원주민 사업가 지원) 원주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aboriginal entrepreneurship program)에 3년간 4,2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 (포괄적 사회개발) 2021 캐나다 예산안은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계획 제시
 - (문화) 5년간 2억 7,500만 캐나다달러를 문화유산부에 할당하여, 원주민 문화와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토착어 활성화(revitalization) 지원
 - (안보) 원주민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5년간 8억 6,1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정의) 원주민의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높이고 사법체계에서 원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7,480만 캐나다달러 투자

3) 공유가치(shared values) 보호³⁰⁾

- (이중 언어 지원) 문화유산부에 3년간 1억 84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이중 언어(영어와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안전과 정의)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실시
 - (총기 규제) 5년간 3억 1,200만 캐나다달러를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과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에 지원하여 총기 폭력(gun violence)과 총기 밀수 및 밀매 대응 강화
 - (여성) 2년간 2,000만 캐나다달러를 여성 및 성평등부(Department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에 할당하여 젠더 기반 폭력 기구(gender-based violence organizations)를 지원
 - (데이터) 5년간 1,100만 캐나다달러를 성평등부에 할당하여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강화

30) 캐나다인들은 다양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개방된 사회라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스러워 하며, 정부는 이러한 공유가치(shared values)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실시함

- (원주민) 원주민 여성 및 성소수자 지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프로그램 개발에 5년간 5,5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가정) 5년간 5,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가정 폭력과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 프로그램 지원
 - (위기전화) 5년간 3,0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위기전화(crisis hotlines)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응
 - (법률자문) 캐나다 법무부(Justice Canada)에 5년간 8,54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법적 도움 제공
 - (교정기관)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에 1억 5,46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
- (캐나다 가치 보호) 2021년 예산안은 캐나다의 '강하고(strong), 안전하고(secure), 참여적인(engaged)' 국방 정책 비전을 재확인(reaffirm)
- (군대 내 성범죄) 국방부에 5년간 2억 3,620만 달러를 할당하여, 군대 내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
 - (우주방위) 5년간 1억 6,340만 캐나다달러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 NORAD)의 현대화에 투자
 - (군사 준비태세)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군사 준비태세(readiness initiative)를 위해 5년간 5억 4,12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전투기 6대와 호위함 1척을 도입
 - (의료서비스 적시 제공) 5년간 1억 3,43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캐나다 국군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timely)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제사회 지원) 캐나다는 이번 위기로부터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필요에 부응
- (개발도상국 지원)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Canada)에 1억 6,500만 캐나다달러

를 할당하여 분쟁과 식량불안(food insecurity)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 (로HING야족 지원) 로HING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FY2021-22부터 3년간 2억 8,830만 캐나다달러를 외교통상부에 할당
- (중동 지원)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5억 2,70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중동지역 불안 줄이고 테러리즘에 대응하도록 인도주의적·군사적 지원 제공

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부(Fair and Responsible Government)

1) 책임정부

- (공정한 조세 체계) 세금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가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조세 체계는 위기 후 회복에 필수 요소
 - (디지털서비스세) 사용자 데이터 및 콘텐츠 기여도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3%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부과³¹⁾
 - (사치세)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신차와 25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보트에 사치세를 부과³²⁾하며, 이를 통해 6억 400만 캐나다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빈집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주택소유자는 실제 주거하지 않는(underused) 주거용 건물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³³⁾
 - (탈세 및 조세회피) 캐나다 국세청은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FY2021-22부터 5년간 3억 41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할당
- (정부 서비스 향상) 2021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 추진
 - (전자 급여 관리) 캐나다 국세청이 고용 및 사회개발부와 함께 전자 급여 관리

31) 디지털서비스세로 향후 5년간 총 34억 캐나다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2)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 및 개인항공기에는 최대 20%, 25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보트에는 최대 10%가 사치세로 부과

33) 빈집세로 7억 캐나다달러의 세수 확보 예상

서비스(e-payroll)를 구축할 수 있도록 3년간 4,39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

- (정보 보안) 국세청에 5년간 3억 360만 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
 - (디지털 서비스 확대) 캐나다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4년간 9,8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 (정부 운영 강화) 효율적인 정부 운영으로 연방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
- (데이터 개선) 주요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계청에 5년간 77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 (출장 축소) 출장비가 가장 높은 부서 및 기관의 운영예산을 줄여 불필요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
 - (사이버 보안)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게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년간 4억 5,63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정부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표 5> 2021년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건강 및 안전 보장	-5.0	-1.2	-1.0	-0.9	-0.8	-0.7
근로자 및 기업의 회복	-0.2	-27.0	-4.2	-1.0	-0.7	0.7
캐나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0.5	-3.9	-9.0	-7.5	-7.6	-8.8
기업의 성장 및 성공 지원	0.0	-3.7	-4.5	-5.0	-2.4	-0.8
건강한 경제 환경	0.0	-1.2	-1.9	-2.0	-1.8	-1.9
도시 및 지역사회 강화	-2.2	-4.6	-3.3	-2.3	-2.0	-3.1
보다 평등한 사회 구축	0.0	-1.8	-1.6	-2.1	-2.2	-2.4
원주민 지역사회 강화	0.0	-4.3	-3.5	-3.0	-1.3	-1.0
공유가치 보호	0.1	-1.9	-1.1	-0.7	-0.5	-0.4

책임정부	0.0	-0.2	0.7	1.8	-2.4	2.5
------	-----	------	-----	-----	------	-----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1

마. 재정건전화

- 정부는 캐나다의 부채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실시
 - 현재 캐나다는 G7에서 가장 낮은 GDP 대비 순 부채 비율(net debt-to-GDP ratio)을 보이며, 중기적으로 연방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21-22 6.4%에서 FY2025-26 1.1%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 FY2021-2022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³⁴
 - FY2021-22 연말기준 총시장채무³⁵는 1조 3,050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910억 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21-22 유가증권은 약 1조 620억 캐나다달러, FY2021-22 단기국채는 약 2,26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21-22 외채는 약 18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6> FY2021-22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 캐나다달러)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추정)	2021-22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576	569	597	879	1,062
단기국채(Treasury bills)	111	134	152	219	226
외채(Foreign debt)	16	16	16	15	18
소매채무(Retail debt)	3	1	1	0	0
총 시장채무	705	721	765	1,114	1,30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1(2021.4.19.) Table A2.3

34)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35)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

바. 2021 캐나다 예산안에 대한 평가³⁶⁾³⁷⁾³⁸⁾³⁹⁾⁴⁰⁾⁴¹⁾⁴²⁾

- (경기부양책) 이브 지루(Yves Giroux) 캐나다 하원 예산사무국 국장은 2021년 예산안이 캐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경기부양책 예산은 9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기한 연장에 요구되는 690억 달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충분하지 않음
 -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의 9월 종료가 너무 이르며, 견고한 회복 달성을 위해 2021년 말 혹은 2022년까지 연장 필요
- (국가채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한 세수증대 혹은 지출감축이 동반되어야 함
 - 지출 증가와 구조적 적자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고안해야 함
 - 사치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나, 부유층 및 법인세 증세(예: 미국), 혹은 새로운 최고 세율에 대한 논의 필요
- 그 외 복지 정책, 환경 정책, 원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고령층 보호) 75세 이상 수혜자에게 노령보장연금 정기 지급액을 10% 이상 인상하는 정책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더 많은 고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 진보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연방 예산안에서 언급되지 않음

36) National Observers

<https://www.nationalobserver.com/2021/04/19/opinion/budget-2021-applies-lessons-learned-covid-19>

37) CTV News

<https://www.ctvnews.ca/politics/what-stakeholders-think-about-the-2021-federal-budget-1.5393858>

38) Greenpeace

<https://www.greenpeace.org/canada/en/story/47431/2021-federal-budget-analysis-how-just-and-green-will-the-covid-recovery-be/>

39)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https://thant.ca/news/canada/the-budget-2021-analysis-many-positives-for-business-resilience-and-recovery-but-navigating-fiscal-uncertainty-will-be-critical/>

40) Financial Post

<https://financialpost.com/opinion/opinion-federal-budget-spend-spend-more-then-spend-more-than-that>

41) CBC

<https://www.cbc.ca/news/politics/budget-debate-begins-1.5994282>

42) CTV News

<https://www.ctvnews.ca/politics/federal-budget-overstates-economic-impact-of-stimulus-spending-budget-officer-says-1.5415173>

- (공중보건) 의약보험(pharmacare program)은 약 구매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환불해주는 보험으로 전국적인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예산안에서 빠짐
- (환경) 새로운 기후행동(climate action)⁴³⁾을 위해 3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나 세부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필요
- (원주민 지원) 캐나다 원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43)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행동(action)